

이정부무용협회 '돌에 핀 꽃' 최우수상 수상

제13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 '박문용' 연기상도 수상



경기도북부지역의 무용예술발전과 무용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 소속 이미숙무용단이 제13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에서 단체 최우수상과 개인 연기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29일부터 6월9일까지 개최된 이번 대회는 안양, 광명, 시흥, 용인, 남양주, 부천, 군포, 의정부시 대표팀 8개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 이미숙무용단은 이번 대회에 '돌에 핀 꽃'이란 작품으로 출연해 서로의 소통을 위한 관계를 맺기 위한 현재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다.

이미숙무용단 심사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연기상에는 박문용 단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이번 대회 대상 수상작품은 제13회 전국무용제 본선에 출전하게 된다. 이번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 부천시 오은령무용단(푸른연호) 최우수상 의정부시 이미숙무용단(돌에 핀 꽃) ▶최우수상 광명시 조대식무용단(연,풍,공) 우수상 시흥시 이승신무용단(세상밖의 외눈박이) ▶우수상 남양주시 전미애무용단(인연) 연기상 안양시 박성민 ▶연기상 군포시 김은희 연기상 광명시 조대식 ▶연기상 의정부시 박문용 안무상 부천시 오은령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극단 아리랑 정약용 프로젝트

한국 전통연희를 대표할 토리극 '정약용PROJECT'가 오는 19일 오후3시와 7시 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포천시 반월아트홀이 주최하

고 극단아리랑이 주관하며 전국문화회관연합회가 후원해 마련한다. 이번 공연은 풍(風)·아(雅)·송(頌) 원리를 연구하여 완성된 한국적 연극 '가무설작법'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연희를 대표할 새로운 토리극의 탄생이란 의미도 있다. 또 우리 교유의 흥겨운 장단을 타고 말을 하고, 장단을 타고 노래를

하고 장단을 타고 움직이고, 장단을 타고 춤을 추는 토리극을 유감없이 선보이고 한국전통의 현대적 재창조의 전형을 창조한 작품이며 현대인의 필독서 <북민심사>를 읽고 재미있는 감동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의 '시(詩)'가 아름다운 춤과 노래로 펼쳐지는등 100분동안 계속된다. 관람료는 R석 1만원,S석 7천원,A석 5천원이며 공연문의 및 예매는 포천반월아트홀(031-530-8938 ~ 40)로 하면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이희용의 연극이야기(95)

연극출현의 근원적 배경

흔히 연극은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노력의 역사라고 한다. 자연과 멀어지려는 거리를 줄이려는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이 노력하고 절제하며 완성해 나가는 삶의 발자국이다. 연극사적(演劇史的)으로 볼 때 연극의 기원에 관한 이제까지의 다양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시켜 볼 수 있다. 인간 기원의식(祈願儀式)에 뿌리를 둔 주술(呪術)이라는 형태가 놀이와 제의(祭儀)의 연계성을 통해 일반화되어 나타났다는 설(說)과 아리스토텔(Aristotle)이 이야기한, 사람과 사물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즐거워하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창조적 모방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접근 방식이 존재하고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왔지만 결국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연극이라는 형태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나 찾아 볼 수 있으며 그것의 기원에 대한 논의도 그것이 생성, 변화된 바로

그곳에서부터 생겨난 보편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애당초 하나의 집단적 현상이었고 한 집단이나 조직의 전체적인 행사로서의 관점이다. 즉 연극이 제사의식으로 행사되어 지거나 불가해(不可解)하고 신비스런 자연을 모방함으로써 인간의 본능적 마음을 나타냈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절대자로 묘사되는 존재, 그것은 바로 신(神)을 의미하고 그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실행하는 소규모의 제한적인 의식이라 생각하고 살아 있는 생명체 모두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각자가 몸으로 느껴 자발적으로 행하는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현상으로서의 대규모의 축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완전히 하나되는 세계로부터 다르게 되는 과정으로 변화하는 근거를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까. 기록에 의하면 '계급가의 출현은 예술에 있어

서의 분화과정을 적극 진행시켰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일체화되어 있었고 그렇게 인식되고 체계화되어 있었던 원시 종족들은 계급의 생기고 지배, 피지배계급의 성립에 의해 개인 각자에게 소유되어지는 모습을 만들어냈으며 극적인 표현의 다양화 속도를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권택무의 <조선민간극>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예술의 분화과정은 원시사회로부터 계급사회의 이행과 그 나라 예술발전의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조선의 원시 제 종족들은 기원전 아득히 먼 태고시기부터 조선반도와 그 북쪽의 광활한 지대에서 살았다. 원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들 사이에는 점차 계급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계급가가 출현하였다." 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여, 고구려, 예, 마한 인민이 즐긴 예술은 원시혼합예술의 성과가 계승하고 그 예술의 특징을 미쳐 다 가지 못한 측면을 가지면서도 이미 원시혼합예술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재현하고 있다. 이것은 그 예술이 혼합예술로



△ 이희용 포천 연극협회 회장 본지 자문위원

부터 예술의 분화과정이 적극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 지점에 자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혼합예술의 성격이 계급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분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하나의 통합체로서의 연극이 독자적 성격의 예술 장르로 발전하게 되는 데에는 계급의 출현이라는 사회학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극에 있어서의 관객의 입장을 단순한 구경꾼의 입장에서 제작자의 입장으로 돌려놓고 그러한 방법론으로써, 역할당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해방되어 연극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연극 장치들을 실천하고 있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 조각가 김영선

작가(사진.35)를 만났다.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437번지에 널따란 작업실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만난 김 작가에게 건넨 첫마디는 포천의 상징조형물을 둘러싼 협의(?)였다. 그렇다. 일종의 협의다. 호국로 돌 이점표 철거에 따른 반감은 상징조형물을 제대로 보는데 걸림돌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김 작가는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암초등학교, 영북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포천의 예술인 26

조각가 '김영선'

축석고개는 포천의 관문이다. 이 관문에 포천의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다. 이 상징조형물을 제작한 김영선

포다. 그것은 포천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한 모음이 준비되고 있어 앞으로 포천사회의 거는 기대가 크다. 포천에도 작가가 있고 이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전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작가는 그동안 단체전 및 기획을 통해 작품세계를 펼쳐왔다.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포천예술인 동우회전(포천문화원)과 포천 미협전에 참가했다. 이밖에도 ▶98.공룡 테마전(한국 예술관) ▶99. 미국 오하이오주 홀로코스트전 (오하이오 주립박물관) ▶00.하남시 초상조각 공인 기획 ▶밀레니엄 초대전 (우석 갤러리) ▶01.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기념 야외 조각전 (광주 엑스포 행사장) ▶오이타 아시아 조각전 (토탈 미술관) ▶해상왕 장보고 동상 조성기획 (완도군) ▶02. 제 3회 청년 야외 조각전 (수원 월드컵 경기장) ▶03. 포천 미협전 (반월 아트홀) ▶서울 조각회전 (문

비구상적이지만 형태적인 감각 추구

포천의 상징조형물 제작은 모든 역량 결집한 걸작

울대학교 조소학과를 졸업하고 6년전 고향으로 돌아와 학원을 설립하고 후학들을 지도하여 서울 장안의 우수학교에 진학하도록 교육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을 통해 후진양성이라는 많은 보람을 느꼈지만 작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도시마케팅 부문에 뛰어들었다. 옥외조형물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살아있는 정신이 담보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창작에 나선 것이다. 상징조형물 작품요구는 지방자치단체나 아파트 건설회사, 대한주택공사 등 다양하다. 그러나 작품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전문 브로커가 중간에 있어 30%이상의 마진을 쥔다. 실질적으로 작가는 나머지 70%를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데 작가정신이 투철한 작가들은 이런 작품을 제작하는데 큰 고통이 따른다. 작품을 위해서는 70%의 예산을 다 투입해도 모자랄 형편이다 보니 졸속 작품이 공원에, 아파트단지, 도심 건물 앞에 세워지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김 작가는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고향인 포천의 상징조형물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포천시민의 정서를 담보하고 포천시의 자연환경이 드러날 수 있는 조각품을 완성했다. 김 작가의 작품성향은 철(鐵)과 어울린다. 거칠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통해 비구상적이지만 형태적인 감각을 작품에 반영한다. 김 작가에게는 꿈이 있다. 전락집단을 키우는 것이다. 포천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한 전락집단을 만들겠다는

예진공원) ▶포천시 반월 아트홀 개관 기념전 (반월 아트홀) ▶04. 2004 현대 미술 초대전 (반월 아트홀) 등을 통해 작가의 세계를 선보였다. ▶공공기획 및 수상실적은 다음과 같다. ▶제 1회 야외조각 청년작가 공모전(경기문화재단) ▶제 1회 충청대학 조각공모 우수상 (충청 대학) ▶해상왕 장보고 동상 전국공모 1위 (완도) ▶삼성 레미안 APT 지명공모 당선 (문정동) ▶포천시 상징조형물 기획 및 제작 (포천시) ▶부천시 수영구 민락타운 상징조형물 우수상 (부천시 수영구) ▶세계 위인 초상 조각 공인 조성기획 ▶2005 국제 친환경 농업 EXPO상징조형물 지명공모 1위(울진) 한편,김 작가는 현재 서울 조각회, 포천 미협,왕립 청동 주조 연구실장, UMI서울 조형 연구 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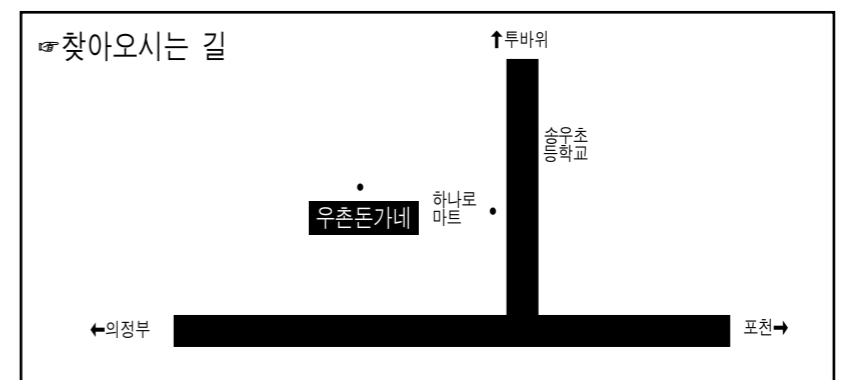


우촌 돈가네 생고기 마을 !!!

-가격혁명을 일으킬 생고기 마을 생고기 맛과 가격에 놀라실겁니다-



메뉴	
우촌 스페셜 모듬	600g 23,000
우촌 한마리 모듬	600g 20,000
버섯 생 불고기	1판 20,000
이동갈비	8대 16,000
육회	300g 10,000
돼지모듬	600g 10,000
항정살	600g 10,000
생갈매기살	600g 10,000
생삼겹살	600g 9,000
생목살	600g 9,000
돼기갈비	600g 8,000



※ 간, 천엽, 육회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 영업시간 : 오전 10시 ~ 밤 12시까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 예약, 문의전화 : 031) 542-0270 / 대표 : 조규범